하남시 올해 3차 추경안 1조1896억 최종 확정

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3건 삭감·유보금 계상

경기 하남시의회가 지난 19일 제34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2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기존 제2회 추경 대비 1096억원 증액된 총 1조1896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819억원, 특별회계는 1077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정책 설문조사' 2200만원 ▲'시민 소통협의체 회의 수당' 416만원 ▲광역교통과 '하남시청역 실내 조경시설 개선공사' 1000만원 등 총 3건, 3616만원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계상했다.

강성삼 예결위원장은 "재난·재해 복구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되도록 심사에 임했다"며 "확정된 예산이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주요 조례 및 동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는 5명의 의원들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발언 내용은 ▲K-스타월드 사업 진행 현황(정병용 의원) ▲미사섬 발전 및 물길 복원(최훈종 의원) ▲시민 대표 무시하는 행정 시정 요구(정혜영 의원) ▲미시3동 교통 불편 개선 촉구(임희도 의원) ▲급식도우미 일자리 확대 제안(박선미 의원) 등이다.

금광연 의장은 "의원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하남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 모습.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돌봄 지원 확대 논의

송파구의회, 학부모 간담회
"중장기 로드맵 검토하겠다"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가 최근 육영학교 학부모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돌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반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성인기 전환 후 교육·돌봄 공백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부족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표준사업장) 필요 ▲공공 체육 시설 이용 불편 등 현실적인 문제를 호소했다. 특히 육영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교 운영 지원, 평생교육 기회 확대, 전문 상담 및 사례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혜숙 의장은 "송파구는 인구 규모에 비해 장애인 관련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송파구 단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재원과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모색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관련 부서와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돌봄·일자리 확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여주시 맞춤 노인일자리 발굴·정책 개선 논의

시의회, 의정포럼 개최

경기 여주시의회는 최근 여주시 노인복지관 별관 2층에서 '여주시 노인일자리,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한 '제15회 의정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시의원, 공무원, 노인복지 관련 기관장, 전문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주시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의정포럼은 여주시가 65세 이상 인구 25.25%로 초고령 도시에 진입한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포럼에서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주시 노인일자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른 노인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사업현황 발표에서는 황현분 여주시 노인복지과장, 박은하 여주시 노인복지관 관장, 박찬여주시 시니어클럽 과장, 김병육 여주시 대한노인회 회장, 양혜영 여주시 자활센터 근로사업팀장 등이 각 기관별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여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 노무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질 높은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으며, 사업단 수도 2022년 51개에서 2025년 73개로 확대됐다고 보고됐다. 이후 진행된 토론 시간에서는 참석자들이 단기성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주=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 방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서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최근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에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소통행보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조기만 도시교통위원장과 박주선 부위원장을 비롯 최동철 의원, 정장훈 의원, 전철규 의원, 김지수 의원, 신찬호 의원이 참석해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의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제공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 관리 운영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혁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마을의 원동력, 희망이 되도록 우리 강서구의회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구로구 올해 2차 추경안 1조1541억 처리… 소비쿠폰·보조금 변경 반영

구의회, 40여건 안건 의결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최근 7일간 진행된 제33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40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안과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소비쿠폰 지급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필수 경비 반영 등을 위해 기정예산 1조1057억여원보다 483억여원 증액된 총 1조154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도 민생회복을 위한 구비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민 삶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다수 통과됐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용권 의원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의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안', 홍용민 의원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노혁 의원의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음주문화 개선, 치매관리, 수수료 징수, 마약류 상품명 개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함께, 총 2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동의안에는 구립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 일드림센터, 재가노인복지기관 등 주요 공공시설을 비롯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시설 등 다수의 복지·보육·교육시설 운영사무가 포함됐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동의안만 15건에 달하며, 이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연천군의회, '郡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지원 조례안' 통과

김미경 군의장 "행정이 책임져야 할 책무" 대표발의

김미경 경기 연천군의회 의장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기후변화로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 환경 속에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장은 "쓰레기 수거, 도로 관리 등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일을 하는 현장 근로자분들이야말로 연천군의 숨은 버팀목"이라며, "폭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는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냉방조끼 등 보호 용품 구입 및 보급 ▲폭염시 휴게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 ▲건강관리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가 근로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천=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강동구립둔촌1동어린이집 방문
김기상 구의원, 보육환경 점검

김기상 서울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성내1·2·3동, 둔촌1·2동)이 최근 강동숲:터 1층에 위치한 구립둔촌1동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원 85명 규모의 구립둔촌1동어린이집은 현재 63명의 원아가 재원 중이며, 을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로 아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육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 공간 확보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내부를 둘러보며 원아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증가하는 아동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로 아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내 보육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